

〈 民俗舞蹈 〉

날외북춤

— 第33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

期 間：'92. 9. 23(水) ~ 9. 25(金)

場 所：慶尙北道 龜尾市 金烏工大 體育館



大邱直轄市

目 次

- 生成背景 3
- 演行過程 4
- 編成·出演者 9

발굴 및 지도교수

金 宅 圭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金 德 煥 慶北大學校 藝術大學

生 成 背 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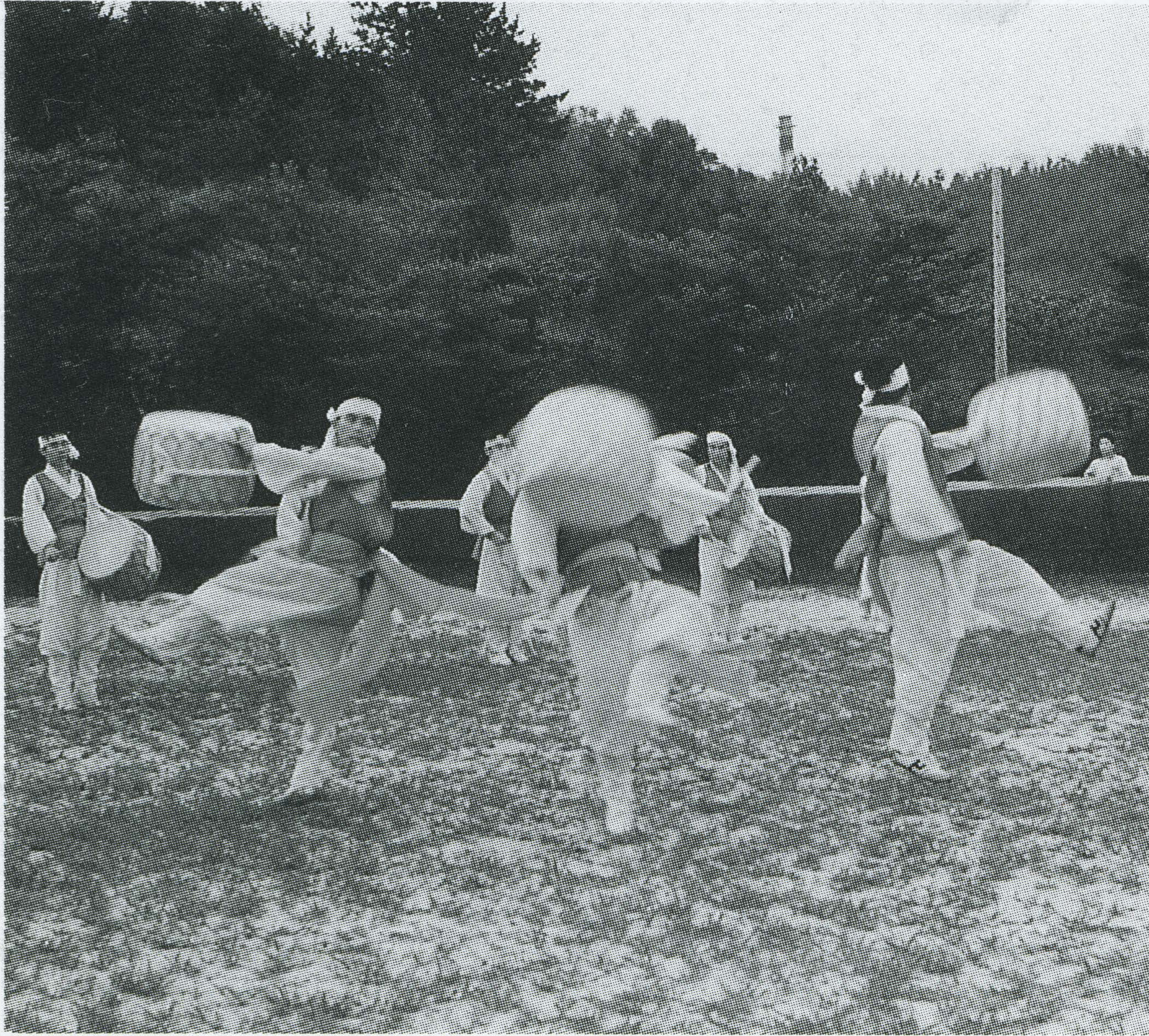
- 생 성 지 역 :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중구 대신동 일대
- 예능전승자 : 김수배(金壽培)
- 형성배경과 발전현황

날피북춤은 비산농악에 뿌리를 두고 두드러지게 발달한 큰북만으로 추는 북춤이며 1983년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이후 대구의 대표적인 민속예능으로 확산 발전되고 있다.

날피(지금의 비산동)의 “원고개”는 달성(達城)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나들이” 길이었다. 옛날고을의 원이 이 길로 부임할때 마을사람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하던 관습이 날피북춤의 기원이라고 전한다.

특히 주민의 추앙을 받던 한 목민관(牧民官)이 순직하매 이곳에 무덤을 쓰고 춘추(春秋)로 제향(祭享)하였다. 이때 외로운 “원님”의 혼령을 달래기 위하여 북을 울리며 춤추던 관행이 “날피북춤”으로 전승된 것이다.

演行過程



◆ 정적궁이

전원이 각자의 걸음폭으로 단마치의 쇠가락에 따라 돌면서 원형을 그리고 상쇠의 2채, 7채가락에 맞춰 정적궁을 치면서 허리춤 어깨춤으로 돌아간다.

◆ 자반득이

“반직굿”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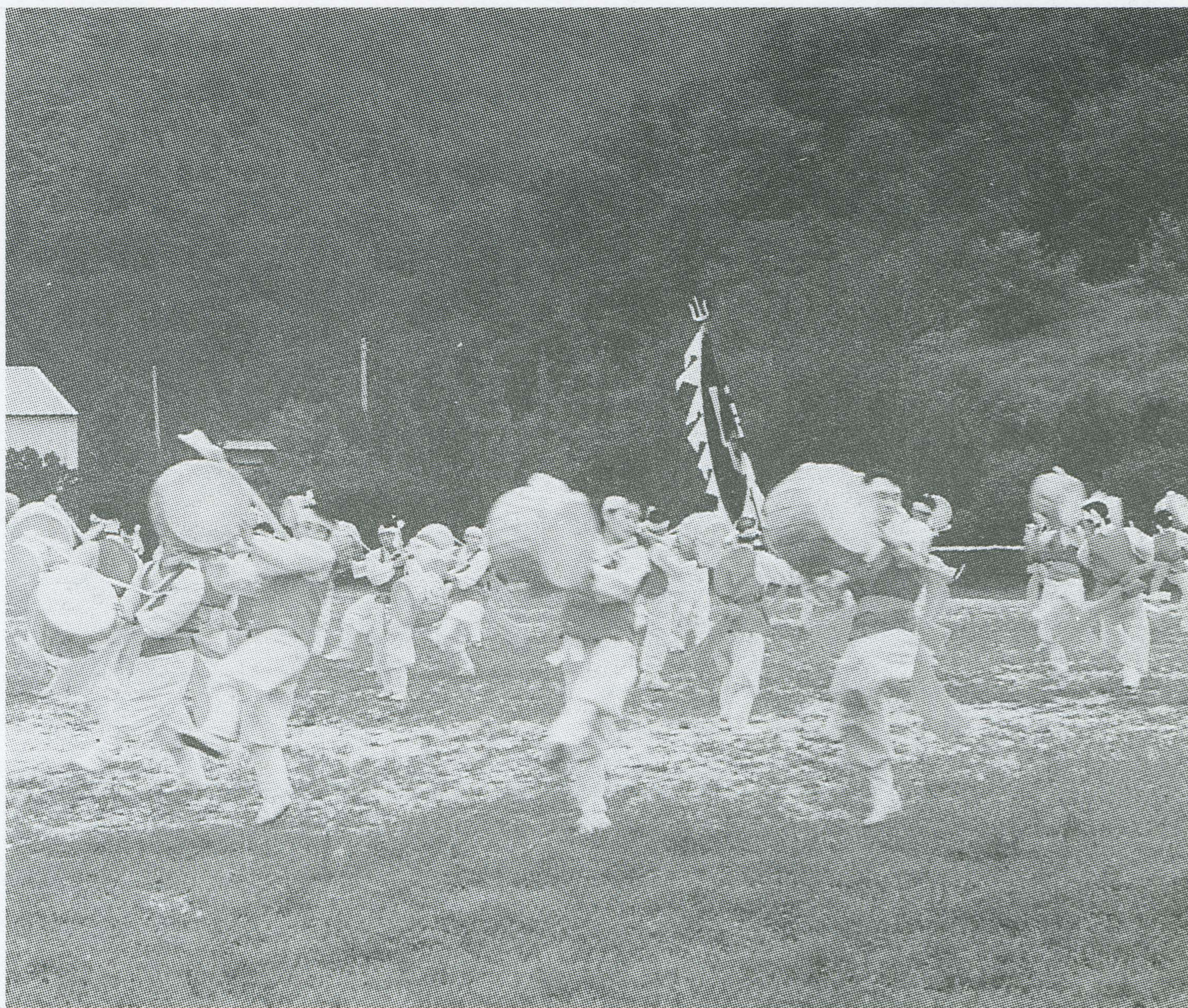
2채, 3채, 4채, 8채, 12채의 순으로 돌면서 덧배기 가락으로 어깨춤, 허리춤이 흥겹게 전개된다.



演行過程

◆ 옆어빠기

2채와 3채의 가락으로 북을
어깨너머로 넘기면서 돌아
가는 춤



◆ 다드래기

3채로 시작하여 단모리 7채
가락으로 전원이 한 줄로
몰아치면서 추는 춤이다.

演行過程



◆ 허허굿

한줄이 원무로 추면서 2채와 3채가락에 맞춰 길지자를 그리면서 춤추는 도무 (跳舞)

◆ 오방진

동서남북 중앙의 오방에 화평을 축원하는 뜻의 원무



演行過程

◆ 모듬굿

20명씩 원을 그리면서 모였
다 흩어졌다 하면서 북을
높이 뒤집으며 돌아가는 원
무(圓舞)



◆ 살풀이

풍요의 환희를 상징하는 유
창한 북소리에 맞춰 추는
어깨춤

演行過程

◆ 진 풀 이



덕석말이 또는 풀풀말이라고도 하는 대단원의 대단합·전원이
말아서 밀집했으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군무(群舞)

편성 및 출연자

◇ 편성 및 복식

악기 : 북 40, 쇠 2, 장고 2, 징 2

도구 : 천왕기 1, 단기 1, 영기 2

복식 : 모두 흰 옷에 녹두색 조끼를 입고, 붉은 허리띠를 드리우며
흰 머리띠를 맨다.

◇ 출연자 명단(50명) 책임자 : 김수배(남. 65세)

쇠 : 김수기(남. 50세), 서준호(남. 55세)

징 : 김상원(남. 66세), 이은우(남. 66세)

장고 : 조은주(여. 22세), 천정애(여. 22세)

단기 : 이일동(남. 75세)

영기 : 임영곤(남. 21세), 배기원(여. 22세)

천왕기 : 권태희(남. 20세)

북 : 김수배(남. 65세), 방도수(남. 37세), 박윤수(남. 38세)

차진성(남. 20세), 김순남(남. 20세), 윤종곤(남. 31세)

오세도(남. 35세), 박정덕(남. 25세), 김영기(남. 20세)

정영숙(여. 21세), 이태원(남. 24세), 정환석(남. 24세)

나문구(남. 24세), 김진규(남. 46세), 박중수(남. 20세)

김경호(남. 19세), 공성제(남. 20세), 배관호(남. 21세)

정기대(남. 25세), 박대현(남. 20세), 현광민(남. 25세)

김상태(남. 29세), 최경희(여. 22세), 김병우(남. 21세)

김정일(남. 21세), 박동철(남. 20세), 박홍식(남. 20세)

이민재(남. 20세), 박효상(남. 20세), 백진기(남. 21세)

김길중(남. 21세), 박주혁(남. 21세), 채상윤(남. 20세)

김계환(남. 20세), 이창호(남. 20세), 이광섭(남. 20세)

안상영(남. 20세), 정범수(남. 24세), 장병태(남. 2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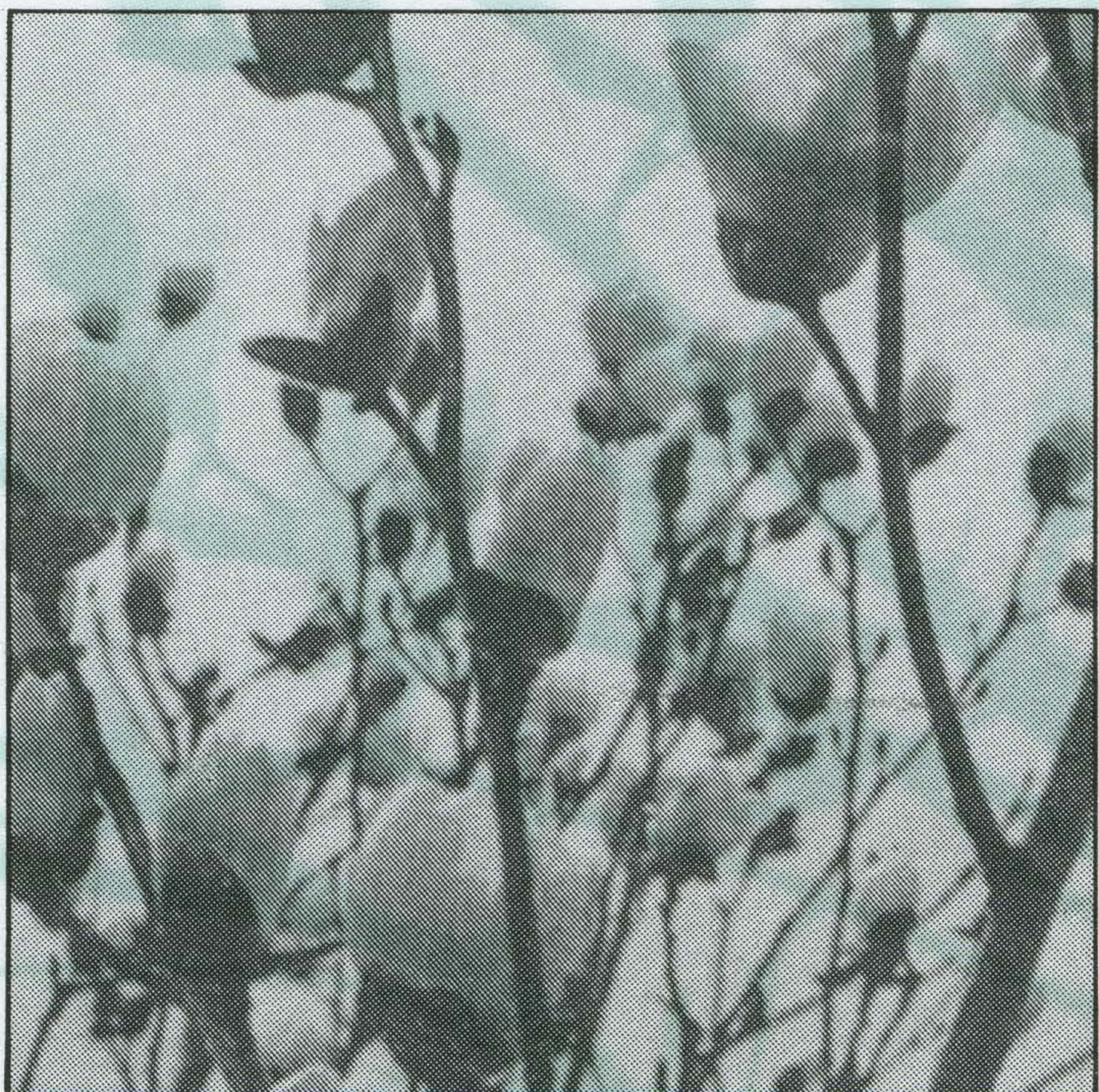
大邱의 象徴



市 木 : 전나무

지정일자 : '72. 7. 18

특징 : 강직성, 영원성
곧게 뻗어가는
시민의 기상



市 花 : 목련

지정일자 : '72. 7. 18

특징 : 순결, 순박,
희생 정신의
시민기상



市 鳥 : 독수리

지정일자 : '83. 7. 1

특징 : 활달하고 진취적
인 기상과 개척
자적 시민정신

시 민 헌 장

우리들은 신라문화의 유구한 전통의 계승자이며, 인계자로서의 성스러운 이상과 명예로운 의무에 사는 대구 시민이다.

인간의 가치로움과 평등의 이름 아래 모이고 일하며, 우리들 스스로가 마련한 우리들의 법률을 지키고 행할 것이며,

정다운 가정을 이룩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고장의 풀 한 포기, 돌 하나에도 서로가 이해로써 아끼고 가꾸어, 우리 모두의 것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보다 밝고 의젓한 시민으로서 귀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 물려줄 크고 알찬 새 도시의 창조자이며 임자임을 자부한다.